

## 1-5

### 동한난류수역의 자치어 군집에 관한 연구

김성\*, 유재명, 이은경, 금지돈

한국해양연구원 환경기후연구본부

자치어 군집에 관한 연구는 2000년 11월과 2001년 10월에 동해에서 실시되었다. 시료는 붕고네트(2000년 11월)와 IKMT(Isaacs-Kidd mid-water trawl) 네트(2001년 10월)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2000년 11월 조사에서 자치어는 총 46종이 출현하였다. 종별 출현량 비율을 보면 앨통이는 전체 출현량의 69.1%를 차지하며 우점하였고, 다음은 멸치로 7.3%, 악어치 2.6%, 놀래기 1.6%, 쌍동미리 1.6%, 망둑어류 1.2%, 바다뱀류 1.2%, *Spinapsaron* spp. 1.2% 그리고 기타 어종들의 출현량 비율은 각각 1.0% 미만이었다.

2001년 10월 조사에서 자치어는 총 72종의 자치어가 출현하였다. 종별 출현량 비율을 보면 멸치가 전체 출현량의 56.3%를 차지하며 우점하였고, 다음은 깃비늘치로 7.8%, 망둑어류 4.8%, 놀래기 2.8%, 바다뱀류 2.2%, 흙무굴치 1.3%, 전갱이 1.2%, *Acanthaphritis uroorum* 1.1%, *Scorpaenidae* spp. 1.1%, 꽃돔 1.1%, 그물메기 1.1%, 자리돔 1.0%, 돛양태류 1.0% 그리고 기타 어종들은 출현량 비율이 각각 1.0% 미만이었다.

동한난류수역에서 실시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자치어의 출현량과 출현종수 모두 표층혼합수층의 수온이 높은 해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난수소용돌이의 중심보다는 수온이 높은 남쪽과 동한난류수 횡단면의 경우 수온이 낮은 가장자리보다는 수온이 높은 해역이었다. 환경변수의 하나인 표층혼합수층의 평균수온과 자치어의 출현량 및 출현종수의 변동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어 군집에 미치는 영향이 수피의 지리적인 분포 특성 이외에도 수피의 온도변화와 같은 내부적인 특성이 자치어 군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